

1월 20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예단 어려운 트럼프발 리스크..변동성 촉각

서울, 1월20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금융시장 전개 양상을 살피며 상황에 따라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445-1485원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에 기대던 트럼프 트레이드가 활발했던 작년 10월 비거주자 NDF 순매입 규모는 200억달러 달했다. 그만큼 트럼프 불확실성에 대해 원화는 예민하고 민감했다.

제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하고 전 세계 이목은 모두 여기로 집중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비롯한 규제완화 및 이로 인한 재정 및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우려에 미국 채권금리와 달러는 위 쪽으로 방향으로 잡고 변동성을 키워왔다.

그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날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지난 2017년 1월 트럼프 취임 날 S&P500지수는 0.3% 상승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 취임 때도 이러한 암전한 시장 반응이 있을지에 대해 시장 확신은 없다.

트럼프 취임 시작부터 글로벌 자산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리스크를 두고 시장은 경계감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원화는 미국 채권금리와 달러에 더해 위안 움직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증시가 지지되는 등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힘을 받을지 아니면 어김없이 미국 증시만 뜨거울지 눈길이 간다.

최근 달러/원 환율은 1450원대를 단기 바닥으로 유의미한 되돌림시도는 제한됐지만, 정국 불안에 따른 상승일변도 흐름에서는 벗어났다. 그러면서 1450-1470원대를 중심으로 한 박스권 장세를 만들어왔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의 불확실성을 아직은 가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화는 대외 시장 전개상황 따라 단기 방향성과 변동성을 저울질하는 흐름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결정 여부와 이에 따른 엔 반응이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트럼프발 헤드라인 리스크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흔들릴 구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잠시 안정된 원화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번 주 챙겨봐야할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는 중국 대출우대금리 발표와 한국은행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 등이 있다.

▶ 주간 세계 이슈

글로벌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시장, 글로벌 무역 및 국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곧 알게 될 것이다.

1월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트럼프는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세금부터 관세까지 다양한 행정명령을 첫날부터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 트럼프 취임

전 세계 투자자들은 월요일에 미국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취임 첫날 수많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일부에서는 취임식 퍼레이드가 시작되기 전에 취임 직후부터 그가 서명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월요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로 미국 시장이 휴장하므로 화요일까지는 투자자들이 완전히 반응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시장은 관세에 대한 초기 움직임에 특히 주목할 것이다.

트럼프의 감세와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미국 국내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장기 채권 금리는 취임식을 앞두고 상승했다.

그러나 미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면서 전직 정책 입안자들은 채권 경계론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다.



⊙ 기업 실적

2025년 미국 기업 이익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전망에 대한 자세한 그림을 볼 것이다.

많은 미국 기업들이 2024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내년에 대한 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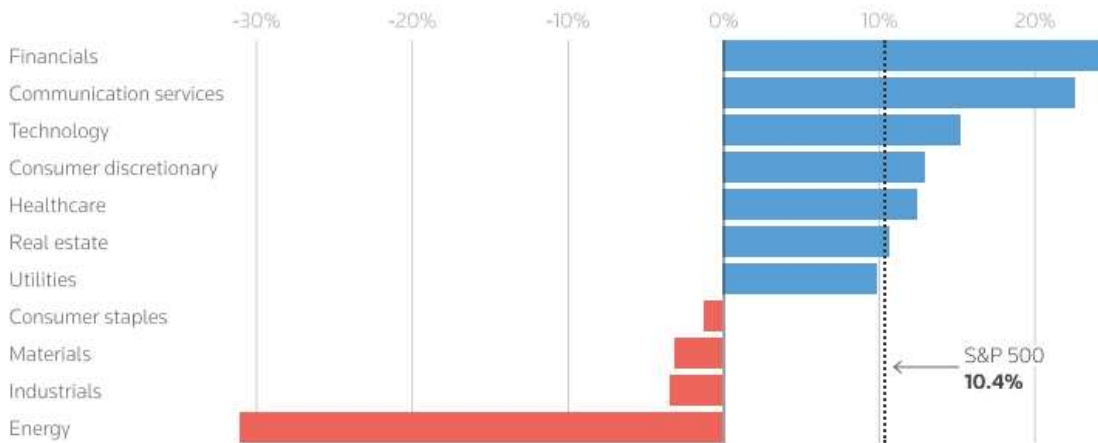
이번 주에는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NFLX.O), 헬스케어 업체인 존슨앤존슨(JNJ.N), 소비재 업체인 프록터앤갬블(PG.N), 신용카드 업체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XP.N)의 실적이 발표된다.

1월15일 기준 LSEG IBES 데이터에 따르면 S&P500 기업의 4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Earnings season

S&P 500 companies are expected to have increased earnings by 10.4% in the fourth-quarter from the year-ago period, according to LSEG I/B/E/S data.

Q4 2024 year-on-year earnings growth estimate



Note: Data as of Jan. 15, 2025
Source: LSEG | Reuters, Jan. 16, 2025

⊙ 전쟁과 평화(그리고 다보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모멘텀에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5개월 동안 지속된 가자지구 분쟁을 끝내기 위한 이스라엘-하마스 휴전이 19일 발효됐으며,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당 지역의 채권과 주식이 상승했고, 석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쟁 3년째에 접어든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트럼프가 약속한 '첫날' 해결보다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시장은 이 지역이 어떻게 재편될지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는 월요일부터 다보스에 모일 예정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스라엘 관리들을 포함한 지도자 및 CEO들에게 온라인으로 연설할 예정이다. 정상회의 전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5년의 주요 위험 요소로 전쟁이 꼽혔다.

⊙ 에너지 가격 상승

유럽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 높아진 차입 비용과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는 원치 않는 상황을 맞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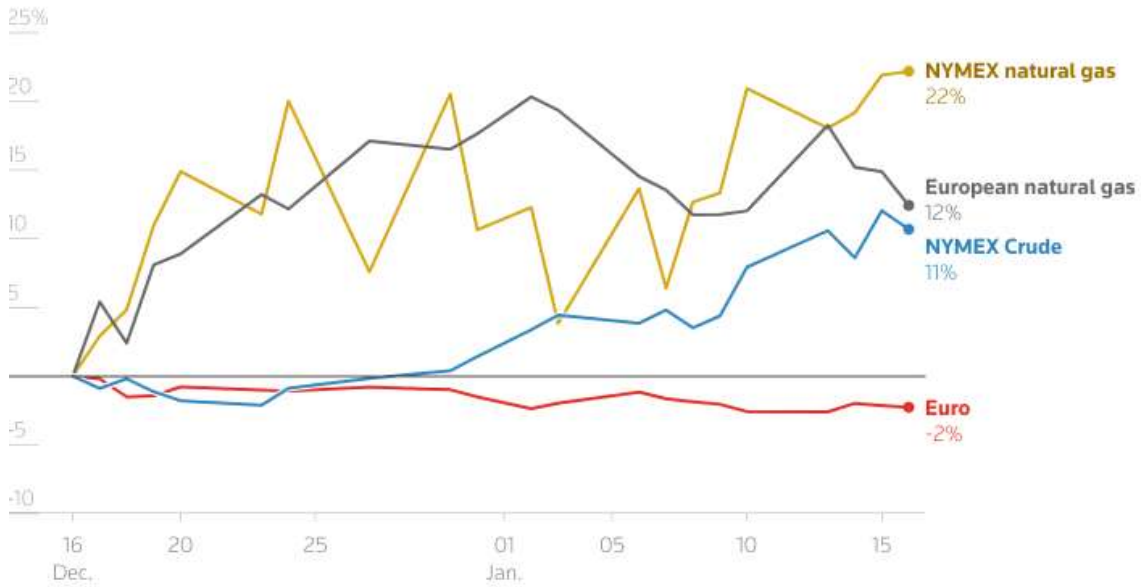
유가 LCOc1, CLc1 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서방의 제재 강화에 대한 우려로 이번 달에만 10% 상승했고, 한겨울 천연가스 가격은 더 치솟았다.

유럽에 더 걱정스러운 것은 유로화 EUR=EBS 가 달러 대비 14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여 1.0달러를 약간만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은 유럽의 최대 액화 천연가스(LNG) 공급국이자 주요 원유 공급국이 되었기 때문에 통화 약세는 큰 골칫거리다. 12월 유로존의 최종 인플레이션 수치는 이러한 가격 상승을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나중에 크게 놀랄만한 수치가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High energy prices may impact inflation in Europe

Energy prices haven risen by over 10% in the last month, while the euro has fallen against the dollar



Source: LSEG Data | Reuters, Jan. 16, 2025 | By Vineet Sachdev

⊙ 일본은행 정책회의

일본은행(BOJ)이 올해 첫 정책회의를 앞두고 있다. 엔화는 6개월래 최저치 근처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BOJ 금리 인상은 일시적일지라도 달러화 강세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와 그의 동료인 히미노 료조 부총재가 1월23~24일 BOJ 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후 시장은 그에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회의 며칠 전에 열리기 때문에 BOJ가 그의 정책이 금융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검토할 시간이 있다는 점도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더들은 1월 금리 인상에 대한 베팅을 올리며 BOJ 관계자의 발언에 반응하고 있다. 현재 선물은 기준금리가 25bp 인상될 확률을 70%로 보고 있다.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최근 랠리 멈춘 소형주, 트럼프 정책 수혜 입을까

뉴욕, 1월20일 (로이터) - 투자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 빛을 발할 자산을 찾는 가운데 공화당 정책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부 미국 주식의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소형주 러셀2000.RUT은 11월 고점 대비 10% 조정되는 등 미국 소형주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같은 기간 대형주 벤치마크인 S&P 500.SPX은 3% 미만 하락에 그쳤다.

20일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트럼프는 국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어젠다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형주 매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몇 주 동안 소형주들은 예상보다 높은 금리 전망과 이로 인한 차입 비용 상승이 특히 소규모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심각한 역풍에 직면해있다.

트루이스트 어다바이저리 서비스의 공동 최고 투자 책임자인 케이스 레르너는 "이론적으로는 경제가 강할 때 친성장 정책이 강화되면 소형주가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더 강한 성장이 소형주에는 좋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높은 금리는 부정적이다"라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주 소형주를 포함한 주식시장은 국채 수익률 급등을 진정시킨 물가지표 영향에 전반적으로 안도감을 얻었다.

투자자들은 상승 여력이 있는 '트럼프 트레이딩'을 찾으며 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작년 11월5일 트럼프 승리 이후 전체 주식시장은 일부 상승분을 내놓은 한편 S&P500지수는 대선 이후 3% 상승했다.

일부 트럼프 관련 거래는 계속 변창 중이다. 트럼프 후원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TSLA.O 주가는 작년 11월5일 이후 60% 이상 상승했다. 우호적인 암호화폐 규제 환경 수혜가 예상되는 비트코인 BTC=은 40% 이상 급등했다.

하지만, 소형주는 하락했다. 러셀2000지수는 트럼프가 승리한 다음 날 6% 가까이 급등했고, 11월 말에는 3년 만의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다만, 현재 이 지수는 대선 이후 거의 변동이 없다.

작년 12월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금리 인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소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다.

지난 주 벤치마크 10년물 수익률은 14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BMO 웰스 매니지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인 용유 마는 "소규모 기업은 부채 부담이 더 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소형주 강세에 대한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트럼프 당선 이후 러셀2000지수는 급등해 트럼프 당선 이후 1년 동안 이 지수는 24% 상승한 데 비해 S&P500지수는 21% 올라 아웃퍼폼했다.

웰스파코 투자 연구소의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인 사미르 사마나는 트럼프 정부 하에서 규제가 완화되고 국내 사업이 촉진될 것이라는 전망은 다국적 대기업보다 미국 중심의 사업을 하는 경향이 있는 소규모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선호가 공급망을 방해할 경우 소규모 기업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사마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arge tops small, in the US stock market

Performance of the small-cap Russell 2000 has trailed that of the S&P 500 in the past two years



Source: LSEG

소형주 강세는 약간의 추격 기대가 있다. 지난 2년간 S&P500지수가 50% 가까이 상승한 분은 러셀 2000지수 상승률 2배가 넘는다.

하지만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 소형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BMO의 마는 트럼프 등장은 소형주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우호적인 금리 환경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이벤트

1월20일 (일)

- ⊙ 한국은행: 2024년 12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 (12:00)
- ⊙ 기획재정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대응한 수출금융 협의체(Fin-eX) 간담회 (12:00)

1월21일 (화)

- ⊙ 한국은행: 2024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06:00)
- ⊙ 관세청: 1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
- ⊙ 한국은행: 2024년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동향 (12:00)

1월22일 (수)

- ⊙ 한국은행: 2025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06:00)
- ⊙ 기획재정부: '24.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7:00)

1월23일 (목)

- ⊙ 한국은행: 2025년 1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 (06:00)
- ⊙ 한국은행: 2024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08:00)
- ⊙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비통방) (10:00)
- ⊙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TF (10:30)
- ⊙ 기획재정부: 2025년 2월 국고채, 재정증권 및 원화외평채 발행계획 (17:00)
- ⊙ 한국은행: 2025년 2월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 (17:00)

1월24일 (금)

- ⊙ 특이 일정 없음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월20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1월20일	08:50	일본	기계류주문 MM	11월	-0.4%	2.1%
1월20일	10:00	중국	대출우대금리 1Y	1월		3.10%
1월20일	10:00	중국	대출우대금리 5Y	1월		3.60%

1월22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월13 일 주 간		224.4
1월23일	08:50	일본	수출 YY	12월	2.3%	3.8%
1월23일	08:50	일본	수입 YY	12월	2.6%	-3.8%
1월23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월13 일 주 간	218k	217k
1월24일	00:00	유로 존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1월	-14.2	-14.5
1월24일	08:30	일본	CPI MM NSA	12월		0.4%
1월24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1월		49.6
1월24일	18:00	유로 존	HCOB 제조업 PMI 잠정치	1월	45.3	45.1
1월24일	18:00	유로 존	HCOB 서비스업 PMI 잠정치	1월	51.5	51.6
1월24일	23: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1월		49.4
1월24일	23: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1월		56.8
1월25일	00:00	미국	기존주택판매	12월	4.20M	4.15M
1월25일	00: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1월	73.2	73.2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월20일 (월)

- ⊙ 세계경제포럼 (24일까지)
- ⊙ 휴장국가: 미국

1월23일 (목)

- ⊙ 일본은행 정책회의 (24일까지)
- ⊙ 휴장국가: 대만

1월24일 (금)

- ⊙ 일본은행 정책회의 결과 발표
- ⊙ 휴장국가: 대만

(김지연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한은 총재 "정치 요인이 환율 30원 올려"..눈여겨 볼만한 외환시장 관련 발언

서울, 1월16일 (로이터)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시장 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00%로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성장 하방위험이 크게 높아졌지만 향후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 경제정책 변화에 따라 경제전망 및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향후 금리인하 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환율은 당분간 높은 변동성이 유지되면서 국내 물가와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요인들로 대외신인도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올해 첫 금통위의 금리 동결 이유로 고환율이 꼽힌 만큼 이날 이 총재의 기자회견에서는 환율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이 주를 이뤘다. 이런 가운데 총재의 여러 발언들이 외환시장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 현 환율 수준, 펀더멘털과 괴리

"계엄사태로 시작한 정치적 변화가 환율에 큰 영향을 줘 현 환율 수준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나 미국 금리 격차 등 경제적 요인을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환율 수준을 과거에는 적게 봤다면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보다 필요 이상으로 올라 물가나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해야하는 상황이다."

▲ 환율 수준보다 오르는 이유 봐야

"2월에 만일 환율이 변한다면 달러 강세로 인한 공통적 현상인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져서 대외 시각

이 불안해지는지 등 환율이 올라간 이유를 봐야한다. 환율 수준에 따른 판단은 아니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폭이 200bp 이상이면 위험하냐 아니냐, 숫자를 보는게 아니라 금리 격차 커지면 어떤 이유에서 커지는지, 자본 유출입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다.“

▲ 국내 정치 영향 환율 반영분 30원 정도

"계엄 전 환율이 1400원 수준이었다면 이후 70원 오른 부분 중 50원 정도는 달러 강세분이고, 20원이 정치적 이슈냐, 그것보다 크다. 국민연금 헤지 물량도 나왔고, 여러가지 정책 충격이 나왔을 때 시장안정화 정책을 해서 안정화 정책 효과도 있다. 1470원 볼때 계엄 이후 30원 정도로 올라 펀더멘털에 비해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다. 총리 탄핵 때는 정치 영향에 따른 환율 변수가 50-60원까지 오르기도했다. 정치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정치적 이슈로 오른 환율 30원 정도는 더 내려가지 않을까 한다.“

▲ 고회율과 유가, 경계감 가지고 봐야

"환율이 1470원대로 오른다면 물가 0.15% 정도 오를 것으로 본다. 유가가 같이 오르면 높아진 환율에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물가가 바닥을 치고 오르는 국면에서 환율과 유가 걱정이 큰데 (물가가) 타깃 수준에서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것으로 톤이 바뀌어야할 것 같다.“

▲ 정치 프로세스 변수

"저희가 개입을 하고 조정을 한다는게 보통 환율을 3, 4원 바꾸기 위해서도 정말 엄청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뉴스가 터지면 20원, 30원 팍팍 튀어버리면 하는 사람도 힘 빠지고 그다음 조정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 면에서 가장 큰 팩터는 현재를 통한 이 정치적 프로세스가 어떻게 자리잡고 그 사이에 우리 경제정책 운영이 어떻게 될지에 달려있다.“

▲ 국민연금 환헤지, 일정부분 실현 유리

"국민연금처럼 장기 투자자, 대규모 해외투자자는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때 미실현된 수익률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일정부분 수익을 헤지를 통해 실현시키는게 각 기관들 수익률 극대화에 좋다. 환율 시장 안정에 도움 달라는 차원이 아닌 국민연금 차원에서도 원이다. 그 과정에서 환율 안정에 도움을 주면 원원이다. 헤지를 해서 손실을 봤다고 하는 것은 헤지 의미를 모르는 것이다.“

(박예나 기자; 편집 문윤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분석)-트럼프 취임식 발언 주시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시장 변동성 확대 예고할까

뉴욕, 1월15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무역과 이민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주 트럼프의 취임식은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예고할 수 있다.

트럼프의 관세 계획은 채권과 주가를 압박하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으며, 이민 규제 강화 노력도 시장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규제 완화 움직임은 암호화폐, 은행주 등 자산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물렌캠프앤코의 제프 물렌캠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시장은 이번 연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지금 모두가 트럼프 또는 그의 최대 측근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단어와 뉘앙스를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시장에서는 이미 감세, 규제 완화, 해외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 예상되는 트럼프의 정책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연설은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백악관이 취할 조치의 토대가 될 수도 있다.

BCA 리서치의 더그 페타 수석 미국 전략가는 "금융시장은 새 행정부가 지금까지 예고했던 것과 다른 방향을 추구할 수 있다는 징후에 움직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대통령 취임식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지만, 트럼프가 예측할 수 없고 발언을 통해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은 말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대통령 취임식에서 S&P500지수는 평균 0.27%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1월 트럼프의 취임 연설이 있었던 날, S&P500지수는 0.3% 상승 마감했다. 미국 주식 및 채권 시장은 마틴 루터 킹 공휴일로 월요일에 휴장하기에, 화요일까지는 시장 반응이 상당 부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S&P500지수는 68% 가까이 상승했지만, 트럼프가 중국과 벌인 무역전쟁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

◆ 트럼프 트레이드

물론 지난 몇 달 동안 투자자들은 앞으로 있을 백악관 내 변화를 반영해 포트폴리오를 변경해 왔다. 트럼프가 여론조사 및 베팅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던 11월 선거를 앞두고도 소위 '트럼프 트레이드'는 활기를 띠었다.

일례로 트럼프 지지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TSLA.O의 주가는 11월5일 선거 이후 60%나 급등했다. 그 밖에 비트코인은 우호적인 규제 환경에 대한 낙관론으로 트럼프 당선 이후 30% 이상 급등했고, 민간 교도소 주식인 지오그룹GEO.N과 코어시빅CXW.N은 이민 단속으로 구치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각 약 100%와 60% 상승했다.

월명턴 트러스트의 토니 로스 최고투자책임자는 "시장은 정책이 명확하게 가시화되기 전에 정책에 가격을 매기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트럼프 트레이드'는 사라졌다. 그 중에는 트럼프의 규제 완화 추진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은행과 소규모 기업 주식이 있는데, 이들은 선거 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전체 주식 시장도 활기를 잃었다.

세금 및 규제 완화 등 트럼프의 친성장 의제에 대한 낙관론은 대선 이후 증시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S&P500지수는 후퇴하며, 11월5일 이후 현재까지 1% 정도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시

장은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하 사이클을 예상보다 빨리 종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주식 시장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

US stock market post-election bump fades

The S&P 500 has given up most of its gains since Trump's Nov 5 election



Source: LSEG

◆ 관세 발언 경계

투자자들은 특정 이슈가 시장을 뒤흔드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DWS그룹의 데이비드 비앙코 미주 최고투자책임자는 취임 연설에서 관세 도입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 주목할 것이며 "트럼프는 관세 조치를 취할 능력이 있고 아마도 매우 빠르게 실행할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앙코는 특히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채권시장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벤치마크 미국 국채 수익률은 금요일 미국 고용 보고서가 인플레이션 불안을 부추기면서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최근 그린란드 합병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고 재정적자 확대 우려를 악화시킬 수 있는 대규모 지출을 시사하는 목표를 선전하는 등 특이한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프리덤 캐피털 마켓의 제이 우즈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취임식 행사에 어떤 비즈니스 리더가 참석할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백악관과 내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개별 기업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F/m 인베스트먼트의 알렉스 모리스 사장 겸 최고투자책임자는 "정책이나 진부한 이야기보다는 분노에 초점을 맞춘 모든 문장"과 같은 어조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노가 오래 지속될수록 채권과 주식은 더 저렴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